

5인의 후보가 말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이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후보까지 5명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전대신문 주관으로 ▲조대신문 ▲지스트신문 ▲목포대신문 이 연합해 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후보들은 전남광주특별시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일자리’를 언급한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보고, 다가오는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여정인 기자·남대희 수습기자 chnews21@daum.net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이종욱 진보당 후보

강은미 정의당 후보

김광만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답변하는 민형배 후보 (전대신문 제공)



▲전대신문 사무국에서 답변하는 이정현 후보 (전대신문 제공)



▲선거사무소에서 답변하는 이종욱 후보 (전대신문 제공)



▲선거사무소에서 답변하는 강은미 후보 (전대신문 제공)



▲선거사무소에서 답변하는 김광만 후보 (전대신문 제공)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디에 내놔도 이 도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민 후보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와 청년들의 유출을 꼽았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이 들어오게 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민 후보는 “추가 노선까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2호선 1단계를 마친 후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2호선 운영비는 특별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태산”이라고 전했다.

민 후보는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광주·전남에서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돼 제시하며 실행하고, 평가까지에 이르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에 놓여있는 이 시기를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전남 정치가 너무 오래 한 방향으로만 흘러왔다고 생각한다. 경쟁이 없으면 행정은 긴장하지 않고, 청년은 떠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해 3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30%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신호이자 경고성 목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2호선에 대해 지하철은 통합특별시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 상권 침체 등의 문제가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진단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진단하고 2호선 공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호선 계획으로 ▲공정과 예산, 위험 요인 월별 공개 ▲주변 상인 피해 보상과 주차·보행 대책 별도 예산으로 마련 ▲광역 교통망과 연결해 환승 체계까지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세대교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왜 광주·전남은 늘 같은 약속을 반복했는가. 그런데 왜 청년 일자리는 충분히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이 광주·전남을 바꾸는 시작”이라며 마무리했다.

이종욱 진보당 후보는 호남에서 다른 색깔의 정치와 행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이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기업 유치 등 대기업의 미래 첨단산업이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 대통합’이 이뤄진 후 단계적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 말하며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모든 행정이 광주로 쏠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현재는 위치에 따라 행정이 소외되는 시대는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는 ▲신생아 1억 원 미래 펀드 ▲지역 소재 대학 등록금 0원 ▲청년 주택 50% 지원 ▲무한도전기금 10조 원 조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배당투자위원회를 구축해 재정 인센티브의 배당 및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지방자치 30년의 호남의 성적표는 이미 낙제점이다. 이것은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말과 함께 정치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전대신문 자료 제공)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정치의 경쟁이 없는 것, 청년 유출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책임정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음을 전했다.

강 후보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부처 산하기관 등 일자리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지방 대학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래산업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이 지역 기업과 연계해 연구자들이 실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연구 생태계 플랫폼 구축,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증진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자가용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를 위해 ▲철도망 개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응답형 교통체계 ▲복합환승센터 등의 광역 교통체계 연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후보는 청년이 광주·전남에서 미래를 꿈꾸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투표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 전했다.

김광만 무소속 후보는 원래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불공정한 경선에 끼어두고 싶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 기업의 유출을 막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롯데칠성기업의 유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어 지하철 2호선에 관한 질문에 “유령도시가 돼가는 상황에 2호선 공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마무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지하철 2호선을 우선 사업으로 할지, 청년과 기업을 우선시할지는 당선돼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 대학 석박사급 고급 인력 유출에 대한 방안으로 “화순, 장흥, 강진과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해 공공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도소리문화를 브랜드화해 국악을 K-POP화 하거나 무등산 리프트카 등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떠나지 않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안주할 것이며, 자신의 비전을 펼쳐나가기 위한 도시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단과대 회장 ‘권한남용’ 의혹에, ‘사퇴 촉구’

지난달 20일 글로벌인문대학(이하 글인대) 학생회장의 폭언과 외압, 회계 불투명 등 전방위적 의혹이 폭로됐다. 글인대 소속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학과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유럽언어문화학부 ▲역사문화학과 ▲일본어과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장단 일동은 글인대 회장의 공식 사퇴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의혹을 고발한 대자보가 연달아 강제 철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글로벌인문대학 내 게시된 대자보

사태의 발단은 ‘체육대회 결강 사유서’였다. 글인대 회장은 단과대 체육대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전원에게 결강 사유서를 발부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유럽언어문화학부 학생회장에게 폭언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고발이 제기됐다. 이에 글인대 회장은 폭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욕설은 결강 사유서”이라며 맥락을 부인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발성 갈등”이라며 “단대와 학과는 수직적 관계에 있어(업무 추진 과정에

서)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게시된 2차 대자보는 글인대 회장의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알렸다. 학과 회장단은 그가 학생회비 미납자를 단과대 학생회로 부정 선발해 세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단과대 학생회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예산 계획 제시를 거부하고 자료파기를 종용하는 등 회계 운영을 은폐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체육대회 당일 학과 회장들을 모아 정제불명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언급됐다.

논란이 추가로 이어진 부분은 연이은 ‘대자보 무단 철거’ 사태다. 글인대 회장의 외압과 폭언을 고발한 1차 대자보에 이어, 추가 의혹이 담긴 2차 대자보까지 게시 직후 강제 철거되며 학우들의 알 권리와 공론화 시도가 차단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복원된 역사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지난달 18일, 국가보훈부 주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지난 6년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옛 전남도청의 개관과 함께 기념식이 치러져 의미가 깊다.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정부 인사 ▲오월 가족 ▲여야 지도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무산된 ‘5·18 헌법 수록’을 언급하며 5·18 정신 계승을 위한 약속을 내걸었다.

식순은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례 순에서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의 주인공인 박영순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했다. ‘오월의 기억’이라는 기념 공연에는 극단 ‘토박이’와 광주 시립 발레단의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군무가 펼쳐졌다. ‘토박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아 활동한 박효선 열사가 설립한 극단으로, 이번 기념식에 뜻을 더했다.

기념식 시작에 앞서 잠시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장 대표가 5·18 개헌안 표결 무산에 일조한 것을 문제로 삼으며 그의 기념식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 직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곳에서 사망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연대와 화합의 장에서 감정의 충돌이 발생한 순간이었다.

기념식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됐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정부가 고유가 지난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함을 알렸다. 앞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은 조치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에는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에는 25만 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액(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별, 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러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적용하되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을 1명 더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급액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사용 불가 업종(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시언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첫 목표는 ‘32강’

손흥민·김민재·이강인 등 최정예 태극전사 출격
대한민국, 체코·멕시코·남아공과 A조 편성



▲2025년 11월 볼리비아 평가전 라인업 (출처: 대한축구협회)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월드컵이다. 총 16개의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동원되는 가장 많은 경기장 수라고 알려졌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16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할 태극전사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LA FC)과 함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이기혁(강원 FC)과 이동경(울산 HD)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좋은 위치로 32강에 가면 선수단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

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목표는 단순히 32강이 아니라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차전이 펼쳐지는 멕시코로 이동하기에 앞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약 2주간 사전캠프를 진행한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1차 분진이 지난 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전캠프에서의 훈련을 마무리한 후 이달 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별리그 A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이달 12일 체코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9일 멕시코와 경기를 펼친 후 25일에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우리 대학 캠퍼스 내 위험 요소, ‘계단’

경사형 캠퍼스 구조 속 계단 안전 문제

우리 대학의 캠퍼스는 하나의 작은 언덕 도시와 같은 느낌이다. 캠퍼스 전체가 평지보다 완만한 경사와 언덕 위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범대학 ▲자연대학 ▲본관 ▲법과대학 ▲IT융합대학 ▲공과대학 제2공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내 셔틀버스 없이 걸어 다니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등교’가 아니라 ‘등산’하는 느낌이라고 농담할 정도의 경사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캠퍼스 구조 탓에 우리 대학은 유독 계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문에서 본관을 향해 이동할 때 기준으로 ▲운동장 ▲중앙도서관 옆 ▲솔마루 옆 ▲108계단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본관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땐 계단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 주로 본관 남쪽과 북쪽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108계단을 이용하는 학생 수보다 남쪽과 북쪽 계단을 이

용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108계단보다 남·북쪽 계단 자체의 경사가 체감상 낮다고 느껴 108계단을 덜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계단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는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남·북쪽 계단은 중앙 108계단 대비 계단의 구조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칸마다 넓고 높은 중앙 계단에 비해 양쪽 계단은 낮고 좁다. 또한 비나 눈, 그리고 평소에도 양쪽 계단은 미끄러워 위험할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폐쇄된 산책로와 그 옆을 잇는 나무 계단 역시 갈라지는 등 많이 손상된 모습이다.

IT 융합대학과 해오름관 사이를 잇는 ‘IT 천국의 계단’ 역시 이용자가 적지만은 않다. IT 오솔길을 지나 중앙도서관 뒤쪽으로 이어진 언덕과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경

우 역시 천국의 계단은 높은 계단과 불안한 느낌의 계단이며, 오솔길과 언덕을 지나 나오는 나무 계단 또한 넓고 많이 낮은 형태로, 일반적인 계단과 다른 모습에 학생들은 조깅하듯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분명하게 위험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올해 우리 대학에 입학한 김학우(산업공학·1)는 “우리 대학이 언덕이 많아 계단이 많다는 말은 입학 전부터 들었다”며 “그래도 교내 셔틀버스가 있어 편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끔 본관 수업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단을 이용할 때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며 “계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우리 대학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언덕’, ‘경사’의 이미지가 강하다.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학교 측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 대학 본관 남쪽 계단

외부인이 자주 다니는 곳, 우리 대학의 전경에서만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야 대

학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급증한 20-30대 암 발병률

최근 20-30대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39세 암 진료 원인 추이 자료의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암 발병률은 지난 2020년 12만 9,440명에서 2024년 14만 4,568명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한 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대장암 환자가 6,599명으로, 5년 사이 81.6% 급증했고, 갑상샘암 역시 2020년 대비 14.0% 증가했다. 대장암 증가세는 전 연령 중 20대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대비 남성 20대는 114.5%, 여성은 92.6% 증가했다.

이러한 젊은 층 암 발병률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암’ 발병률은 7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젊은 암 발생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지목되는 원인은 바로 ‘식습관’이다. ▲기름지고 단 음식 위주의 섭취 ▲초가공식품 중심의 식단 ▲불규칙한 식사 패턴 등이 몸속 환경을 바꾸고 염증을 만들면서 암 위험을 높였다. 이에 대해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는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여러 요인이 합쳐졌을 때 위험이 더 커진다”라며 “대표적인 원인은 초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이며 이런 식품은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청년층 식생활 평가 지수 평

균은 54.6점으로 전체 평균인 62.4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과 함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습관’도 문제이다. 고려대구로병원 중앙내과 오상철 교수에 의하면 “젊은 연령층에게 암 발생이 많아진 이유는 현재의 생활 습관이 암 발생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현대인의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등이 발생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생활 습관들을 함께 무너뜨린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암을 예방해야 할까? 우선 주 3-4회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폭음과 폭식은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어린 나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건강한 젊은 날을 보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박시언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개방 “도심 속 피크닉 명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하늘마당의 잔디생육 보호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개방했다. ACC는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하늘마당을 임시 개방하고 20일부터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늘마당은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한다. ACC 부설 주차장에서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고, 5·18 민주화 광장으로 가는 별별 마켓 브릿지 직전에 자리 잡고 있다. 완만한 경사 위로 잔디가 펼쳐져 있는 이곳은 인조 잔디가 아닌 천연 잔디로 조성돼 있어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조명이 비춰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갖는다. 하늘마당 바로 아래 ACC 전시실에는 다양한 기획 전시가 마련돼 있어, 피크닉 전후로 전시를 관람하고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하늘마당에서 동명동 쪽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동명동 여행자의 집에서는 피크닉 세트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피크닉 세트에는



▲하늘마당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피크닉 바구니와 돛자리가 포함되어 있고, 음료와 간식도 함께 제공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시간과 인원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짐 보관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다만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이용 시간이 최대 1시간으로 제한된다.

한편, 임시 개방 기간 쓰레기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하늘마당을 오랜 기간 이용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피크닉으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사용한 자리는 정리 하고 가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ACC의 하늘마당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휴식을 즐기길 권한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512345@naver.com

민립의 역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논의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존폐'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대학도 '지속 가능한 생존'에 대한 고민을 시대적 과제로 마주하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8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이번 대학부 기획에서 짚어보겠다.

줄어드는 학생들, 멈춰 서는 캠퍼스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매년 대학 정시·수시 모집 현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이미 시행됐으며, 2000년 이후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등 20여 개 대학이 폐교됐다.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방 대학의 중도 탈락을 증가 역시 충원율과 더불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내 반수, 편입에 도전하는 1-2학년 학생들이 많아지며,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4년 발행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2.3%로, 10년전에 비해 3.6%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117.7%로, 10년전에 비해 1.4% 증가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의 위기 속 생존 방안 모색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각 대학은 생존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핵심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과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추세이다. 최근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이 결정됐다. 정부는 '글로벌 30'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 대학 통합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재정적 자율성이 낮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 대학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학과 간 벽을 허물며 '융합 학과'를 신설하기도 하고,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RISE 사업과 대학 혁신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도 장기적인 시선에서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만 2천 '민립'의 위기

과거 고등교육의 황무지 시절, 국가조차



▲우리 대학 전경

책임지지 못했던 대학 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다. 국가의 지원 한 톨 없이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7만 2천여 명의 지역민이 스스로도 부족한 주머니를 털어 상아탑을 세웠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 대학의 시작이었다. 우리 대학은 설립 이래 국가가 외면한 고등교육의 책무를 지방 사학의 몸으로 묵묵히 도맡아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가 유럽처럼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국공립 중심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가 대학 교육의 대다수를 사학에 의존해 온 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의 직격탄을 사학이 홀로 온전히 받아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졌다.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면 그 불평등한 경계선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학정보공시자료 제공 사이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무려 53.2%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1,656만 원인 반면 전남대는 2,648만 원으로 큰 격차가 나타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점에서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학의 재정 구조는 필연적으로 파산의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탓이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이면에는 법인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하게 돼 있다. 이사들은 임기가 3년이며, 자천 혹은 타천으로 차기 이사 후보가 돼 2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 비록 중임제한이 전혀 없는 일반 사학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이사진 선출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개방이사제도'가 운영 중이기

는 하나, 이사회의 최종 의결 구조가 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개방 이사가 기존 이사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흐름을 견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민립(民立)'이라는 설립 정신과 현실 지배구조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 이사장 체제가 당시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출범했다는 점은 우리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립의 주체성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제도적 역학 관계에 의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구성원의 대표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민립'에서 '국립'으로의 전환 논의

우리 대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생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바로 대학의 소유권을 공공의 영역으로 넘기는 '국립화 전환' 논의다.

우리 대학은 과거 1대 총장 박철웅의 사학 비리와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민립'의 주체성이 흔들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해 왔지만, 높은 등록금 의존도와 구성원의 민의를 담지 못하는 지배구조가 여전하게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우리 대학 분회 이철갑 교수는 "과거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진 이후,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를 '사적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학내 분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이사회 구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추천하지만, 지역민이 지은 학교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며, "원래의 '사회적 소유' 취지에 맞게 공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립화 전환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고등교육의 책무를 사학에 넘겨온 국가에 대해 공공성의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 매입을 통한 국립화를 제시했다. 학교를 공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학 재산을 매입하되, 그 금액을 교육 재정으로 재투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국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 "학생 납부금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필요한 교육 투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단순히 허황된 시나리오와는 아니다. 지난 2013년 사립 체제에서 재정난을 겪다가 국립으로 전환된 인천대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와 더불어 '공익형 민립대학'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 내에 전남대라는 거점 국립대가 존재하는 상황과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의 전환을 승인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80년 전 국가가 하지 못한 고등교육의 책무를 일반 시민들이 짚어졌듯이, 이제는 현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할 때이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돼 '민립'의 가치를 지키며, 8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에 나서길 바란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형 인재의 시작 산업공학과

이공계열의 경영학이자 공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학문으로 널리 인식되는 산업공학은 종합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로 발전해 오고 있다. 우리 대학 산업공학과는 기업활동의 합리적 계획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시스템 기술 등을 교육하고 연구한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으로 산업공학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학문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산업공학과는 일반 경영학과와 달리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기술을 적용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갖춘 시스템 엔지니어 및 미래형 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공학 커리큘럼은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ABEEK)의 산업공학심화프로그램으로 인증돼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 산업공학과는 일정 기간 꾸준히 공학교육인증 산업공학심화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산업공학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조성빈(산업공학·4) 학생 회장과 짧은 인터뷰를 나눴다. 조 학우는 산업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전공과목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종합설계및응용 ▲최적화모형및알고리즘 ▲CAD ▲CAM ▲



▲산업공학과 MT 행사 (출처: 산업공학과 학생회 제공)

제품설계 ▲머신러닝종합설계 ▲실험계획법 등 특정 기술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전공 하나하나가 특징이 다르며 ▲AI ▲바이브로딩 ▲빅데이터와 결합한 과목들도 다룬다.

조 학우는 산업공학과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특정 산업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은 기계, 전기공

학은 전기로 명확한 범위가 제시되지만, 산업공학은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공학 졸업 후 진로로 ▲제조·반도체·IT 대기업 공정·품질 직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물류 ▲금융 등 다양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직군에 몰리지 않고 본인

관심사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공학과는 다른 학과와 'E-sports 대회'를 협업해 진행하기도 했고, 2학기에 산업시찰 및 산업 가요제를 개최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우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날을 만들어보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공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입학 전, 산업공학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아직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히려 산업공학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정 분야에 묶이지 않고 공부하면서 본인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게 단점이 아닌, 넓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공학과 학우들에게 “배우는 범위가 넓다는 건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본인을 빠르게 파악해서 어떤 전공이 본인에게 맞는지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정의를 배우고 공익을 설계하는 곳 공공인재법무학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은 시대 흐름에 맞는 공직 인재와 법률 전문가를 동시 양성하기 위해 공공인재법무학과를 신설했다.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우리 사회의 공직 및 법률 전문가 진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책임감 ▲공정성 ▲정의감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이다. 공공인재법무학과는 과거 프리로스쿨학과를 전신으로 한다.

기존의 프리로스쿨학과는 로스쿨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공공 리더 양성을 강조하는 학계의 트렌드를 적극 수용해 공공인재법무학과로 학과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신설했다.

공공인재법무학과의 탄생 배경에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우리 대학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많은 지방 사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단과대학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는 현실 속에서도, 신설 학과를 과감히 승인했다는 점은 법조인 양성을 향한 대학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비록 로스쿨 유지에는 실패했으나,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대학 출신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백년대계의 필요성이 모여 공공인재법무학과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학과 커리큘럼의 뿌리는 단연 ‘법학’이다. 법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 근간으로 하며 로스쿨 진학을 위해 맞춤형 연계 프



▲공공인재법무학과 체육대회 행사 (출처: 공공인재법무학과 학생회 제공)

로그램과 원어민 영어 강좌를 통해 글로벌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학과의 차별성은 역시 여기서 도출된다.

공공인재법무학과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과정 'Pre-Law'의 토대 위에 공공 인재라는 트랙을 추가해 논리학, 행정학 등 인접 학문을 폭넓게 포섭한다. 이를 통해 법학적 사고력과 공직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다.

학과 생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해 박현주(공공인재법무·3) 학생회장을 만났다. 박 학우는 공공인재법무학과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학과”라고 정의했다. 법과 행정은 결국 사람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에, 사회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기르는 곳이라며 전공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학과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등 전공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기관 견학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박 학우는 전공과 직접 연결된 실제 현장을 경험하면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공공인재법무학과 학우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법총론 수업을 가장 유익했던 강의로 꼽았다. 이 수업으로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사안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고, 법을 현실과 연결 지어 사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생활 중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지금의 경험들이 모두 앞으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우분들 모두 자신만의 목표를 잃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학생회 역시 항상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학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이처럼 공공인재법무학과의 지향점은 맹목적인 시험 합격이나 스펙 쌓기가 아니다. 강의실을 넘어 세상의 이면을 통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문화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배우는 구성원들의 열정이 이 학과의 진짜 원동력이다.

정의를 배우고 공익을 설계하겠다는 약속대로,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공공인재법무학과 학우들이 들인 노력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가장 단단하고 정의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민폐의 기준

공공장소에서의 암묵적 규칙과 자유의 충돌



▲ 현재는 사라진 열차 내 이동식 간식카트 (출처 : 포토뉴스)



▲ 지난달 열린 우리 대학 축제의 스탠딩 존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민폐’라는 단어는 언제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 과거에는 금기였던 일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중받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로 규정해야 할까? 이 애매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는다.

열차 안에서 해결하는 식사

현재 흔하게 논쟁이 되는 것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열차 내부에서 음식을 섭취해도 되는지다. 과거에는 기차 내부에서 작은 카트를 끌고 달걀과 사이드, 혹은 도시락과 같은 음식을 판매했다. 그렇기에 기차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였다. 그러나 현재 쾌적함과 개인 공간의 침해 여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에게 기차 안 취식은 낭만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햄버거나 떡볶이, 김밥 등을 밀폐된 열차 내에서 섭취할 때 발생하는 냄새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모든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열차 내 식사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경우, 허기를 채우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소음이 적고 냄새가 덜 나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음료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핵심은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유가 타인의 쾌적한 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 조심하는 태도 자체가 민폐와 예의를 가르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카페에서의 기준

이러한 공공 공간에서의 갈등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공간인 ‘카페’로 옮겨진다. 언제부터인가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켜고 공부나 업무를 보는, 이른바 ‘카공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방문한 일반 이용객 사이의 눈치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 카공족들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며, 옆자리 손님의 대화 소리나 웃음

소리가 자신들의 학습을 방해한다고 여기곤 한다.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손님을 향해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까지 벌어지며 갈등 소재로 자주 언급된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아닌, 상업적 휴식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인 카페에서 소비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에 카페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일반 손님에게 향하는 눈치는 논란거리가 된다.

아울러 개방된 문화 공간을 마치 개인 독서실처럼 점유한 채 타인의 정상적인 이용을 검열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카공족의 태도가 더 큰 민폐라는 반발이 거세다. 공간이 지닌 본래의 목적과 상호 간의 기대치가 어긋날 때, 민폐의 기준은 이처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으로 바뀐다.

뮤지컬 극장과 콘서트장에서

공간의 목적성에 대한 오해는 대중 공연 문화인 ‘뮤지컬 극장’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뮤지컬 관객들 사이에서는 숨소리도 조심하며 굳은 자세로 관람해야 한다는 일명 ‘시체 관극’

문화가 암묵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공연에 몰입하고자 하는 관객들은 옆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 부스럭거리는 소리, 심지어 극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가벼운 웃음이나 감탄마저도 공연을 망치는 민폐 행위로 몰아세우며 눈치주기도 한다.

규칙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또 다른 풍경은 바로 많은 사람이 밀집한 ‘콘서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우리 대학의 축제에서, 연예인 공연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려면 최소 4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관객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기는 ‘스탠딩’ 형식에서는 모두 다리가 아프기 마련인데, 그 사이에서 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관객이 있다면 이는 민폐일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일까?

혼자 앉아 있는 행위가 민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공연장의 안전 ▲동선 방해 ▲현장 분위기 저해를 근거로 든다. 축제 속 연예인 공연 특성상 밤이 돼야 시작하기 때문에 공연장이 어둡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바닥에 앉아 있으면, 흥분한 다른 관객의 발에 밟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한껏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공연 전체의 몰입도를 깨뜨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규칙을 준수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동참하는 공간에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전체의 암묵적 약속을 깨는 행동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콘서트 표를 정당하게 얻은 관객으로서, 체력적인 한계나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앉아 쉴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관객에게 무조건적인 기립과

열광을 강요하는 것도 다수가 가하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공연을 보겠다는 개인의 권리를 민폐라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변하고 있는 ‘민폐’의 의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폐’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사회적인 검열의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집단의 행동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는 개인을 향해 민폐라고 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가치가 흐려지는 것과 같다. 기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배를 채우는 옆자리 승객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 카페에서 매너를 지키며 대화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 극장과 콘서트장에서 타인의 사소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기차 안에서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 카페에서 장시간 좌석을 독점하지 않는 양심, 사람이 밀집된 구역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등 상호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조건적인 규제나 이분법적인 비난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꾸준한 생각이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이 감당할 불편함보다 크지 않은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작은 배려들이 모여 비로소 ‘민폐’라는 모호한 경계선을 허물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성숙한 대중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신혜진 수습기자

tsisgwls12345@naver.com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달은 대학생들이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고, 종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분주해지는 달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현충일, 6·25 전쟁과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여러 기념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함을 전하는 달이다. 1963년 처음으로 지정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한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 및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우리에게 그 목적에 맞는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안전한 땅을 일궈주신 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호국 보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번 글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에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전국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인식과 현재 보훈의 수준 평가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보훈의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보훈은 긍정적(76.7%)이고 필요한 것(83.5%)이지만,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40.7%)는 인식임이 확인됐다.

또한, 보훈을 생각할 때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연상하지만, 보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국민의 몫'은 아니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보훈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정의에 대해 공감했고, 본인이 생각하는 보훈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국민에게 보훈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부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국민은 보훈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30%로 낮은 편이었다. 보훈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개개인은 보훈의 실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출처: 외교부)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실천의 방법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는 보훈 대상과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겠다.

호국 보훈의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로 나뉘는데, 두 대상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로, 전쟁 참전유공자분들과 독립 유공자분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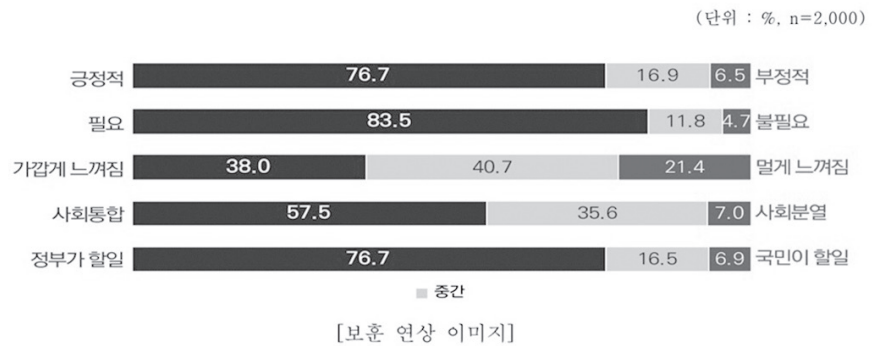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로, ▲군인 ▲경찰 ▲소방관분들이 있다.

우리 국민은 보훈 보상 대상자를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국가 수호·안전보장 활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 각각 87.9%, 87.4%로 인식했다. 반면 공무 수행이나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하신 분들은 60%대로 비교적 낮게 인식했다.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경제적 보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으며, 현재 보상 수준에 대해 부족하다(66.6%)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보훈을 '경제적 보상'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념일에 대한 인지도는 3·1절이 92.9%로 가장 높고 ▲광복절(91.2%) ▲현충일(89.9%) 순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기념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의 일부 (출처: 국가보훈처)



▲제3회 마포구 호국보훈 감사축제 속 독립운동가의 양장점 프로그램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출처: 마포청년문화의집)

의 호국보훈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청소년 운영위원회 '한뼘'의 지난해 맞이한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호국보훈 인식 조사 결과, 광복의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 비율은 93%, '광복절이 오늘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호국보훈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잘 알지 못하거나 (43%), 또래 친구들의 역사 관심도에 대한 평가 질문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는 응답은 단 16%로 저조했다.

이처럼 기념일에 대한 '관심도'는 어릴수록 더 낮아지는 등, 세대별 간극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컨설팅기업 주식회사 피엠아이(PMI)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복절 인식 조사 결과, ▲광복절의 의미 ▲하는 일 ▲납짜 등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 82.4%였지만, 20-30대는 70%대로 평균을 밑돌았고, 광복절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 역시 40-60대는 90%대인 것에 비해 20-30대는 70% 후반에서 80%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훈 기념일이나 국가 유공자분들에 관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기념일과 우리 영웅들에 대한 배움을 얻었고, 덕분에 어느 정도 인식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보훈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충일이나 광복절과 같은 국가 기념일에는 학교와 학원이 운영하지 않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크다. 그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떠올리기 보다는 개인적 휴가나 할 일에 집중한다. 역사에 대한 인식에 비해 부족한 역사의식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기념일을 기리는 방식을 단순히 '참석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 관련 음악과 춤 등을 활용한 콘서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챌린지 등 문화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우리 세대가 자연스럽게 역사적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기념일을 무조건적인 묵념, 키워드 중심의 공부로써 기억하기보다는 역사·문화 체험 등 현장 교육으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해 기억을 남기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긍정적인 기억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보훈 콘텐츠의 개발과 현장 체험 형식의 교육을 통해 '호국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그 공훈에 보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나날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바쁜 달이지만 한 번 씩 감사함을 떠올리는 달이 됐으면 한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대학 지하 공간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 건물 1층부터 지하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알고 있는가?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안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외에도 곳곳에 존재하는 우리 대학 건물 내 지하 공간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대학 건물 중에서 지하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 ▲본관 ▲체육대학 ▲약학대학 2호관 ▲자연대 건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과 본관 건물의 지하는 사용이 어려워 폐쇄된 적이 있고, 사회대 지하는 현재까지도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나는 지나다닐 때 궁금증을 유발하고 소문으로만 들던 두 지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관 건물

본관 북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중앙으로 걸어가다 보면 출입문과 함께 계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본관 지하로 가는 계단이다.

해당 장소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 본부 지하 벙커 입구로 촬영된 장소로, 우리 대학 학우



▲우리 대학 본관 지하 입구 모습

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쇄 상태였지만, 현재는 미래모빌리티 실험실습동이 새롭게 조성돼 있다. 미래모빌리티 실험실습동은 AI·SW학부 모빌리티 SW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실과 학생회실이 위치해 있다.

해당 학과가 IT 융합대학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본관에 공간을 조성한 이유에는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 우리 대학 건축 안전 환경팀에 문의한 결과 우리 대학 예산이 아닌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본관 지하를 리모델링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누수도 있고, 습기가 많아 환경이 열악했던 장소임에도

지하로 오게 됐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공간이 한 동안 폐쇄 상태로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폐쇄 이전에 본관의 지하 공간에는 학생 식당이 존재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했던 탓에 솔마루를 새롭게 짓기 시작했고, 솔마루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식당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 건물

건물 1층의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굳게 닫힌 철창이 나타난다. 철문 앞까지는 누구나 내려가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던 장소이며, 지하를 통해서 본관과 연결돼 있다는 등 소



▲사회과학대 지하 복도 모습

문도 존재한다.

해당 장소는 과거에 ▲학생회실 ▲동아리방 ▲정진 학사(스터디실) ▲남자 휴게실 ▲탁구실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여름에 침수된 이후로 폐쇄됐고, 현재까지도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다. 침수 이후, 습하고 누수가 있는 열악한 환경과 큰 관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의 본관과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 건물의 지하는 시간이 지나올수록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학교 측은 재사용을 위한 우리 대학 차

원의 예산 투입은 현실적으로 금액도 많이 들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본관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받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기도 했다.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학교의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궁금증을 유발하던 공간이 다시 학생들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fgus@naver.com

오직 청년들을 위한 공간,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조별 과제와 팀 활동, 혹은 힘든 학업을 피해 잠시 쉬어갈 공간을 찾을 때 우리는 흔히 도서관이나 카페를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대학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오직 청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숨겨져 있다. 동구 청년장작소 옆, 이색적인 빨간 길과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골목 안쪽에 가옥 한 채를 마주할 수 있다. 바로 광주 청년들만의 공간이자 아지트인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다.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는 만 19세부터 35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이곳이 일반 건물보다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건축물이 가진 독특한 모습 때문이다. 이곳은 1900년대 중반에 건축된 적산가옥 1동과 전통가옥 1동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2023년에 리모델링 완공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존 건물의 외관과 구조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내부는 실용적으로 고쳐,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실내를 구성했다.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입구

공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분리돼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인 '나래마루' ▲청년과 멘토가 함께 진로를 컨설팅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꿈이룸' ▲청년 작가들의 전시를 보여주는 갤러리 공간인 '머무름' ▲조용히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마루' ▲공용 휴게 공간인 '충전소'로 이뤄져 있으며 공부, 면접 연습,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대관 예약은 현재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시간대와 공간을 예약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13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요가 ▲필라테스 ▲우드 카빙 클래스 ▲무비데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진로와 미래를 상담



▲프로그램 시작 전 내부 모습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 청년들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지트 안쪽에 있는 갤러리에는 2주마다 새로운 주제와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가 기획된다. 현재 10월까지 전시 예약이 계획돼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관람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내 자치구마다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는 동구청과 민간업체가 협력해 위탁 운

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그만큼 활발하고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신속하게 최신 프로그램 모집 정보와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힘든 학교생활을 마치고 청년들만의 아늑한 공간인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길 바란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512345@naver.com

2026년 상반기 다시보기

2026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획에는 우리 사회와 대학의 큼지막한 이슈를 다시 정리한다. 지난 이슈들을 다시 보며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남은 하반기 계획을 꾸려가길 바란다.

이란-미국 전쟁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출처: 뉴스1)

올해 2월 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주요 시설을 공습하고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이에 이란은 유조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지난 4월, 휴전을 협상하고 종전에 대해 논의가 있나 싶었으나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는 “이란에 전례 없는 강력한 타격을 가하거나 우리가 좋은 합의에 서명하거나 둘 중 한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 말하며 전쟁 재개를 암시했다.

천만영화 <왕사남> 탄생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중 일부 (출처: 쇼박스)

올해 2월 개봉한 단종과 그의 충신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넘어 영화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달 기준 누적 관객 수는 1,687만 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순위 2위이다. 그러나 영화는 표절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방영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고(故) 아무개 씨의 유족은 ▲단종이 특정 음식을 먹으며 쌓는 유대 ▲엄흥도가 단종의 반응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투신하려는 단종을 엄흥도가 만류하는 장면 ▲엄흥도의 자식을 세 아들에서 외아들로 축소 ▲여럿이었던 궁녀를 한 명으로 재구성한 설정 등 7가지를 유사하다

고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역사적 사실 자체인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영화의 구조가 다름을 이유로 표절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유족이 주장한 7가지의 요소를 반박할 자료를 요구했다.

우리 대학 개교 80주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개교 80주년 코너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민립 대학으로 출발한 우리 대학은 100년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80년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대학은 각종 변화를 맞이했고 교육과 민주주의를 되찾기도 했다. 이를 기념해 홈페이지에는 개교 80주년 코너가 별도로 마련됐다. 해당 코너에서는 우리 대학의 역사와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되찾은 우리 대학의 역사와 민주 과정은 본지 1177호 3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5월의 광주



▲복원된 옛 전남도청

지난달은 광주의 5월, 민주화의 달이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1980년을 되새기는 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진다. 마라톤, 추모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그들을 기린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념의 의미를 넘어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슴에 새긴다.

올해는 오랜 복원을 끝내고 개관한 옛 전남도청의 앞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역사적 상징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번 호 1면에서 볼 수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은 5·18 특집호인 본지 1178호에서 다뤘다.

스타벅스 논란

지난달 스타벅스의 '5·18 조롱'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었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옛 전남도청 앞에 걸린 스타벅스 불매운동 현수막

하는 문구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담당자를 해고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시민들과 배달 플랫폼, 정부 기관까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각종 이벤트와 행사 상품으로 스타벅스 제품을 이용하지 말자는 인식이 확산됐고, 학보사 역시 이벤트 상품으로 다른 브랜드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홍보 포스터

이달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특별 시장이 선출된다.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며 호남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대신문과 지스트신문, 목포대신문과 연합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등 후보 5명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의 이야기와 공약을 들었다. 이번 호의 5면에서 후보자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80년의 시간이 머무는 공간, 우리 대학 역사관

계절이 푸르게 짙어가는 캠퍼스가 학우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본관 중앙 한편에는 우리 대학의 80년 역사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우리 대학의 역사를 담은 역사관이다.

역사관 내부에는 과거 우리 대학 본관을 이루던 ▲벽돌 여러 장 ▲사용됐던 교재 ▲학생증 ▲교련복 등이 전시돼 있다. 한편에는 과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이 넓은 교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커다란 대학 모형도 자리하고 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서 받을 들이는 순간, 80년 전 이 땅에 대학을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서류와 빛바랜 사진을 모아둔 창고가 아니다.

1946년, 해방 직후 국가는 대학을 세울 여력이 부족했고, 시민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국가가 못 하면 우리가 하자”라는 의지 하나로 쌀 한 말, 참



▲본관 내 우리 대학 역사관

깨 서너 말 등을 보태며 민립(民立)대학의 기적을 일궈냈고, 이는 호남 시도민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대학 역사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

닌 조선의 역사 80년을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존재를 알고 직접 찾아가 우리 대학의 뿌리를 직접 느껴보기를 추천한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때, ‘민립’의 기억은 비로소 지속된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감춰진 아시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억을 다시 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3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전시가 진행된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된 이번 전시는 ACC가 수집하고 연구해 온 아시아 지역의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를 보여준다.

전시 제목인 ‘장치’는 단순한 카메라나 영사기 같은 도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을 포착하고 시간을 편집하며, 특정 기억을 배열하는 구조로서, 우리가 봐온 것과 보지 못하도록 감춰진 것 사이를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전시장은 감시탑(판옵티콘)을 연상시키는 3층 규모의 원형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다. 1층은 오랫동안 외부의 시선에 의해 규정돼 온 ‘여성의 서사’와 역사 속 소외된 목소리를 주도적인 시선에서 다룬다. 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이 대학 시절에 제작한 초기 단편 영화 <백색인>도 상영하고 있다.

2층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원



▲전시장 입구 전경

형 구조의 별실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곳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를 포스터 형식으로 새롭게 제작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3층의 전망대에서는 전시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상업적인 비디오의 자극적인 부

분에서 잠시 벗어나 아시아의 공동체적 서사, 여성, 소외된 사람들 등 다양한 시선을 ‘장치’를 통해 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길 추천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고,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남대희의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쿠터, 카카오 바이크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시내에서까지 주행과 주차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대학 내에는 많은 학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다. 넓은 캠퍼스 탓에 교내 셔틀도 운행 중이며, 장거리 통학하는 학우들의 자차 이용률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동 킥보드는 학우들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주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높은 경사와 많은 언덕 탓에 정문과 후문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학우보다 전동 킥보드를 통해 본관과 사범대학, 경상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우들이 많다. 대부분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완벽하



▲경상대학 앞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된 모습

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경상대학은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일반 도로로 지나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주차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추가로 음주 후 이용하는 것은 음주 운전과 해당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돼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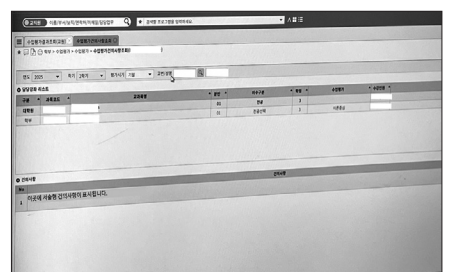
신혜진의 팩트를 찾다

교수 평가 시스템, 익명 보장

지난달 우리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수 익명 평가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화제였다.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학생들은 한 학기의 절반 동안 자신들을 지도해 준 교수에 대해 강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평가 결과가 교수에게 전달될 때는 학생들이 작성한 서술형 답변 내용만 표시된다.

시스템 장치가 이처럼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익명성에 대한 깊은 걱정과 성적에 대한 보복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한다. 그러나 대학 학사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평가 시스템 구조상, 학생 본인이 주관식 답변에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교수가 작성자를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학생들이 작성한 객관적인 평가는 해당 교수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강의 평가에서 저조



▲실제 교수에게 보이는 평가 결과 화면

한 점수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다수 발견된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 측에 호출돼 평가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경위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강의 평가는 학생들의 대학 교육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익명 평가는 개선을 위한 수단이지 공격과 비난의 수단이 아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보상을 위한 평가는 강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512345@naver.com

축제의 배경을 꾸린, ‘스태프’의 72시간

화려한 조명이 캠퍼스의 밤하늘을 수놓고, 연예인의 몸짓 하나에 수천 명의 학우들과 수많은 지역민들은 한목소리로 환호성을 지른다. 주막의 불빛은 깊은 새벽에도 꺼질 줄을 모르고, 낭만과 열기라는 이름 아래 2026년 그라시아(GRACIA) 축제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뜨거운 열기에 취해 있던 그 찬란한 축제의 중심부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화려한 무대 뒤, 스태프 옷을 입고 더위와 인파 속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이들이 있다. 밀려드는 인파를 통제하느라 목은 쉬었고, 축제 기획부터 쓰레기 수거라는 작은 일까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은일을 묵묵히 도맡은 인물들, 바로 축제의 스태프들이다.

이번 축제 기간, 나는 스태프의 일원으로 강의실 대신 축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외부 운영팀 소속으로 학우들과 지역민들의 환호성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들어낸 이들의 숨 가쁜 72시간을 기록해 본다.

내가 마주한 첫 현장은 팔찌 및



▲2026 그라시아 스태프 단체 사진

MD 부스였다. 작년보다 재학생 존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기 줄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졌고, 부스 앞은 재학생 존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끝없이 밀려드는 인파와 내리쬐는 피약별 아래 서 있자니, 마음 한구석에서 “축제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별 아래서 오래 기다리는 학우들을 보며 안쓰러움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신

속하게 안내하려 애썼지만, 수많은 사람이 뒤엉킨 현장은 그리 쉽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푸드트럭이 늘어선 힐링 존 역시 낭만과 규정이 부딪히는 경계선이었다. 힐링 존에서 웃고 떠들며 축제의 낭만과 청춘을 즐기는 모습은 학교생활로부터 지친 학우들을 힐링시켜 주는 듯했다. 청춘을 즐기는 학우들의 흥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정된 주류 외의 주류 반입은 금지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규정 앞에서 20

대 학우들은 성숙하게 협조해 준 반면, 일부 30대나 중장년층 지역민들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통제구역을 지키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통제구역 내부로의 진입을 감시하고 안내를 무시하는 일부 시민들을 제지하느라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가장 바빴던 현장 중 하나는 인파가 몰리는 상습 병목 구간인 힐링 존 입구와 무대 진입로의 연계 통로였다. 압사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을 차단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장에서 “왜 귀찮게 멀리 돌아가게 만드냐”라는 거센 반발로 돌아왔다. 낯선 향의 속에서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한 자리가 없으면 사고는 순식간이라는 생각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자리를 지킨 스태프들의 인내가 축제를 안전하게 이끌고 있었다.

사흘간의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는 적막만이 찾아왔다. 그 적막을 지킨 마지막 존재 역시 스태프였다. 누군가는 무대를 즐기며 청춘을 보낼 때, 땀별 아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수

행한 스태프들의 진짜 막은 텅 빈 무대 위에서 새로이 올랐다. 총학 생회장의 우렁찬 선창이 밤하늘을 울렸다. “조선대동단결!” 뒤이어 전원이 한 목소리로 “우!”라고 외치는 함성이 사흘간의 피로를 날리고 축제의 진짜 마침표를 찍었다. 그 구호처럼 우리는 학교 이름 아래, 대동단결했기에 안전사고 없이 이 거대한 축제를 끝낼 수 있었다.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는, 묵혀둔 고생담이 오가며 유쾌한 웃음꽃도 피어났다.

축제의 막이 내린 지금, 남은 것은 함께 땀 흘린 동료 스태프와의 연대감, 뜨거운 청춘의 기억이다. 우리 대학 대동제의 이름인 그라시아의 뜻처럼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두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우리 대학 모든 스태프 여러분, 협조해 준 재학생 모두 GRACIAS(감사합니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현장의 경험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배우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운영요원 참여기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학과 생활,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내에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 ▲봉사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대외 활동도 존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찾아본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올해 나는 졸업 학년이지만, 이전까지 대학 생활에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관심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도전해 보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시도해 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대외 활동은 세계인권도시포럼 운영요원 활동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매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고, 올해는 지난달 15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됐다. 포럼의 주제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 도시’이다.

해당 포럼에 운영요원으로 지원



▲세계인권도시포럼 본 회의장 모습

하게 된 계기는 인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포럼 형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회의하고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도 듣고,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던 이유에서 참여하게 됐다.

운영요원 분야는 ▲운영 지원

▲현장 사무국 ▲등록 안내 ▲물자 ▲회의 운영 총 5개의 파트로 나뉘었다. 나는 회의 운영 분야로 참여했으며 회의 자료 준비, 플로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1-2일 차에는 메인홀에 회의 운영 보조를 맡으며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서 주관한 ▲AI시대, 웰에이징 인권과 디지털 포용 ▲전남대 특별회의의 ▲개회식과 전체회의

에 참석하였고, 3일 차에는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총 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인권센터가 주관한 AI 시대, 웰에이징 인권과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에서 신경구 소장(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이 ‘잘 늙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것에 대한 기조 발제이다.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AI와 디지털 시대 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발표를 들으며 이전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변화된 시선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전체 회의의 강성현 교수(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교수)의 발제에서 과거 역사적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현상을 보며 ‘현재사’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정의 실천에 있어 ‘사실에 영역’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고려하는 ‘정동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발제 내용 역시 기억에 남는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발표를 들 수 있었다. 비록 일이긴 했지만, 얻어가는 것 없이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귀 기울여 들었다.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종의 색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처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단순히 일만 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소통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만약 대외 활동을 고민 중이라면, ‘스펙’이 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가치와 연결된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gus@naver.com

프레스(Press)에서 뉴미디어(New Media)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신문을 직접 찾아 읽고, 시간에 맞춰 TV 앞에서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무거운 종이신문을 펼치거나 시간에 맞춰 앵커 브리핑을 기다려야 했던 ‘프레스(The Press)’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본래 언론계를 총칭하는 대명사인 ‘프레스(Press)’는 15세기 금속 활자 인쇄기에서 유래했다. 무거운 강철 기계로 활자판을 꼭 눌러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던 물리적 도구가 신문과 기사를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수백 년간 이 프레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TV, 라디오)은 이른바 ‘올드 미디어(Old Media)’라 불리며 우리 사회의 정보를 말아왔다. 올드 미디어의 특징은 ‘일방향성’과 ‘시공간의 제약’이었다. 독자는 언론사가 정해진 시간에



▲신문을 읽는 독자 (출처: 동아일보)

찍어낸 지면을 배달받거나, 편성표에 맞춰 TV 앞으로 찾아가야만 비로소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때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던 프레스 중심의 시대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 견고하던 선을 가볍게 넘어서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과 일방향성이 해소되면서, 뉴미디어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종이신문 이용률은 단 3.1%로 사실상 멸종을 고했으며, 청년층의 TV 언론 시청 여부도 48%를 기록하며 올

드 미디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지표를 두고 청년들이 세상에 무관심해졌다고 혀를 차지만, 이는 미디어의 본질을 읽지 못한 착각이다. 청년들은 언론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언론 소비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에 가깝다. 굳이 TV 앞으로 찾아가는 대신, 바쁜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나 알고리즘이 배달해 주는 핵심 요약 뉴스를 통해 세상을 더욱 빠르고 영리하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방식의 진화는 언론 생태계 자체도 재편하고 있다. 과거의 기성 언론이 정보를 쥐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뉴미디어는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양

방향성’을 핵심 특징으로 삼는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뉴스를 보고, 읽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지 않는다. 댓글과 실시간 커뮤니티를 통해 기사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SNS를 통해 뉴스를 직접 유통하며,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포착해 언론사보다 빠른 제보자로 활약한다.

결국 오늘날 청년들이 보여주는 미디어 소비문화의 변화는 언론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시대의 진화에 발맞춘 발전이자 변화였다. 그들은 신문과 TV, 라디오에서 벗어나, 제약을 깨고 생산과 소비를 넘나드는 뉴미디어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읽어내고 있는 청년층, 그들이 가리키는 곳에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한국 입맛 사로잡은 중국 프랜차이즈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마라탕 ▲튀김 등 중국 음식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중국 요리 하면 자장면을 바로 떠올렸다면, 이제는 ‘마라탕’이 먼저 언급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다양한 중국 음식들이 생겨났으며, 그 음식들에 익숙해졌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흐름이 생겨난 걸까?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1인 1파트너십인 ‘용가 튀김’은 강남점을 시작으로 ▲명동 ▲건대 ▲대학로까지 연이어 확장 중이고,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하이하이라오’ 또한 명동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 분석 결과, 하이하이라오의 지난해 매출액은 1,177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40억 원이었던 매출과 비교해 약 8.4배 급등한 금액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마라탕 업계의 확장세도 어마어마하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탕화쿵푸’ 매장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매장 수가 560개를 넘어섰다. 한국 탕화쿵푸의 지난해 매출액은 2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디저트 업계도 새롭게 열풍이 일고 있는데, 중국의 ▲차백도(茶百道·ChaPanda) ▲헤이티



▲중국 프랜차이즈 ‘탕화쿵푸’의 가게 입구 (출처: 동아일보)

(HAYTEA) 등의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입점했다. ‘차백도’는 강남에서 시작해 홍대, 제주도까지 확장하며 국내에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비교적 최근 입점한 ‘차지(CHAGEE·파왕차희)’도 일명 ‘장원영 밀크티’로 한국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프랜차이즈의 한국을 시장 공략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재 중국 시장의 포화과 성장의 둔함이 원인이 됐다. 중국 매체인 텐센트 뉴스에서는 작년 중국 외식업 폐점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경신했으며, 외식 소비객단가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좋지 않은 국내 시장 분위기에 해외 시장으로 발을 들인 것이다. 그렇게 입점한 음식

점이 한국 젊은 세대의 입맛을 저격하며 파죽지세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외식업계의 분위기는 중국 프랜차이즈와 극명히 다른 모습이다. 공정 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식업 개점률은 18.2%로 전년(21.5%)보다 떨어졌고, 덩달아 폐점률은 2023년 12.6%, 2024년 13.4%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프랜차이즈의 열풍과 국내 시장의 흐름을 통해, 국내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각 브랜드의 앞으로의 행보와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요즘이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이달의 포토



▲낙동강을 건너는 피난민들 (출처: 부산역사문화대전)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

이달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며,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포함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3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이산가족을 남겼다. 전쟁의 영향으로 무너진 폐허가 된 도시와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향해야 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크게 2차례의 피난을 경험했다. 전쟁이 발발하며 시작된 피난을 ‘1차 피난’, 중국군 참전으로 인한 대규모 피난을 ‘2차 피난’이라 한다.

어두운 흑백 사진 속 낙동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히 생생하게 전해진다. 머리 위에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짐을, 강을 건너는 와중에도 어린아이들의 손은 놓지 않는다. 웃음을 잃고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은 당시 피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방학 때 뭐하지? 싶을 땐 대외활동!

새 학기에 적응하느라, 새로운 동아리와 그룹 활동에 익숙해지느라 정신없었던 1학기도 어느새 끝이 난다. 뜨거워진 햇볕만큼 여름 방학을 열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학생들은 각자 분주하게 여행 계획, 공부 계획 등을 준비한다.

이번 여름방학을 우리 대학 학생들이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름방학에 하기 좋은 대외 활동과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2026년 광주형 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지원하고 광주 청년이 완성하는 30일간의 특별한 프로젝트로, 전국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30일간 머물며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나만의 삶과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 대상은 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최대 4인)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아르케(ARKE)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프로젝트 계획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일정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모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시로 생성한 이미지

이달 7일까지이다. 선발은 서류 심사과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참여자 3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1인 최대 140만 원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며, 팀은 팀원 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와 밀착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진로, 직무 탐색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7월 9일부터 9월 6일 동안에 누적 30일 정도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듯 새로운 경험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해 주는 ‘광주형 청

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두 번째는 ‘2026 광주_아시아 국제건축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에서 주최하며, ‘참여 건축’을 주제로, 공간의 주체가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임을 조명한다. 또한, 건축이 어떻게 사회적 상상력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시적 가능성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참가 대상은 공간에 관한 생각을 전개해 도면과 다이어그램 등

으로 건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시아인만 참여할 수 있다. 7월 29일부터 31일 18시까지 사전 접수 기간이며, 본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14일 18시까지로 광주_아시아국제건축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는 1차 심사에서는 ▲도판 파일 ▲응모 원서 파일 ▲등록비 입금증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1차에서 선정된 2차 심사 대상자 10여 명은 본상 대상자로, 모형과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최종 선정작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ACC에 전시된다.

국제적인 공모전인 만큼 치열하지만, 그만큼 더 다양한 건축에 대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건축학도들과 건축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공모전이다.

세 번째는 ‘202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이다. 이는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따라 해외 안전 여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재고를 위해서 대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제도 및 해외 안전 여행 정보를 창의적으로 전달 및 홍보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의 서포터즈 활동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 외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총 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활동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로 ▲해외안전여행 공식 SNS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홍보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또한, 활동 기간에는 팀별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며, 마케팅 실무진 및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멘토링과 강연을 들을 수 있다. 활동 후에는 우수 서포터즈를 시상해 ‘외교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7일까지로, 모집 구글 폼을 통해 작성한 지원서 및 사전 미션을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콘텐츠 제작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이 서포터즈 활동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링크커리어 ▲위비티 ▲캠퍼스픽 등의 앱을 통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각자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결과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방학 동안 돈 모으고 관리하기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종강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여름방학. 학업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실제 학생들의 방학은 자유만 있지 않다. ▲여행 ▲취미 생활 ▲등록금 ▲생활비까지 돈 쓸 일은 많지만, 통장에는 언제나 적은 숫자만 찍혀있다. 방학을 그저 흘러보내기보다 경제적 자립의 기회로 삼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이번 방학을 더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소득 벌이 방법과 현명한 돈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방학 동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제도를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제도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있다. 교내외 기관에서 근무하며 시급을 지원받는 제도로 많은 대학생이 이용한다. 특히 교외 근로는 시급 12,790원으로 교내 근로와 일반 아르바이트



▲동전이 저금된 사진

의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아서 방학에 하기 좋다. 1일 최대 8시간으로 방학 중에 주 40시간,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많게는 약 2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는 새 학기 시작 몇 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공서 아르바이트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비교적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근무하고 업무강도가 낮아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아르바이트에서는 챙기기 어려운 주휴수당과 월차수

당까지 받을 수 있어 방학 동안 돈을 모으기에 좋다. 지원하고 싶다면 방학이 시작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의 ‘관공서 알바’ 전용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일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타이밍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자리는 순식간에 마

감된다. 따라서 종강하고 나서 일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종강하기 최소 3주 전, 시험기간 틈틈이 구인 구직 플랫폼을 살펴보고 미리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봐두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소득이 생기자마자 보상 심리로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돈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통장 쪼개기’가 있다. 하나의 통장에서 생활비와 적금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통장은 ▲돈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 ▲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소비 통장 ▲저축을 위한 저축 통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정부와 은행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미래적금이 이번 달부터 출시되고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는 것도 추천한다.

경험을 쌓고 돈을 버는 과정에

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방학을 앞두고 돈을 벌고자 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수의 불법 아르바이트 사기가 악명 높기 때문인데, ‘꿀알바’라고 하면서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구인 공고는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구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를 위한 내용은 본지 1178호 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곧 다가오는 방학은 단순히 노는 시간도, 그렇다고 공부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도 아니다. 스스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결실을 직접 통제해 보는 경험은 전공 공부에서 배우기 힘든 삶의 실전 감각이다. 이번 방학 동안 여러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고 지출을 통제하며, 나아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512345@naver.com

교수칼럼

능력주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혁신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는 부(富)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철학이다. 능력주의의 전제는 보상을 위한 평가(examination)와 입증된 성취(demonstrated achievement)이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보듯이 성과에 따른 보상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성과가 많은 메모리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능력이 비메모리 부문 노동자보다 뛰어나게 우수한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 노조 조직 내의 분열 즉, 노노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통 우수 인재

로 표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낙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지도자 및 지도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우수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우수한 능력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학력, 과정을 통한 자격보유, 연구개발이나 업무 성과(실적)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조직(공동체)내에서 지도계층이라는 신분제로 연결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 저서를 통해 능력주의 사회의 한계, 즉,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능력과 함께 개인의 환경, 운 등에 의해



노순국 교수
(자유전공학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소개한 이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즉, 우수 인재에게 많은 보상을 주는 능력주의가 공정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점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또는 공동체 내의 신분제로 연결되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겠지만, 능력으로 포장된 굳게 고착화된 신분제는 개선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조선대학교라는 공동체에도 구성원의 능력주의를 반영한 경직된 신분제도가 규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수를 의미하는 전임교원은 학교 규정에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채용 절차, 임용, 승진, 급여 등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우리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약 90%이며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약 10%정도인 소수그룹으로,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신분을 정년 계열 전임교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몇몇 사립대학들은 일정 기준을 갖춘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정년 계열 전임교원으로 신분을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신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MIT Future Tech의 2026년 연구에 의하면 AI와 디지털전환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환경(자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

다고 한다. 여기서 자리는 조직 내 물리적 공간이나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 ‘구조’, ‘문화’로 확장되는 개념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AI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개교 80년이 되는 우리 조선대학교에서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에 계도 자리를 개방하고, 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능력이 검증된 이들에게 내부적으로 신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 보기를 희망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우수 인재(교원)를 내부적으로 발탁(拔擢)함으로써 이에 따른 외부적 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줄일 것이고 나아가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혁신(革新, innovation)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기존의 사고와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 방법, 문화 등을 만들어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의 발전을 주도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서석대

외모가 뛰어나면 무죄?

지난달 5일, 모두 들었을 어린이날.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23세 남성 장 씨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광주 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 씨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14일에 공개를 진행했다. 장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선 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대해 “잘생겼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랬냐”, “인물이 아깝다” 등의 평가를 남겼다. 이는 사건의 초점을 변질시키며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다.

우리나라는 ‘외모 정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러한 집착이 사회 문제에서 드러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모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범죄자에게도 적용되며 사건의 본질인 행위보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진다. 장 씨의 평가뿐만 아니라 지난 2월 검거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의 SNS에는 “예쁘니까



여정인 기자
duwjddis1022@naver.com

무죄”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2022년 가평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를 대상으로 SNS에 팬클럽 대화방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그가 예쁘다는 이유로 범죄를 옹호하는 일이 있었다. 범죄는 외모가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돼야 한다.

과거 언론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초상권 및 인격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리스크 감소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를 이용했다. 이때 일각에서는 모자이크를 통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강하게 빚발치고, 이를 공개했더니 2차 가해가 퍼지는 상황이다.

신상이 공개되고 외모와 범죄를 연관 짓는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다면 가해자의 외모 품평에 대한 발언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모습에 집중돼 피해자의 고통과 유가족의 아픔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외모를 이유로 그들을 옹호하는 일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외적인 면보다, 사건의 본질과 아픔에 집중돼야 할 때이다.

수습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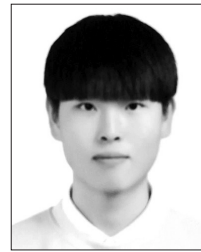
허위조작정보 속에서 “옳은 것”이란 있을까?

“옳은 것이란 있을까?”

요즘같이 허위조작 정보가 너무나도 만연해진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사실 여부 또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진실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현 사회에는 SNS를 매개로 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경찰과 중국 공안의 MOU(업무협약서)로 한국 내에 중국 공안이 있다든지, 부정선거 주장 등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나는 이런 경우, 직접 출처를 확인하며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찾아보면서 알게 된 허위조작 정보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내보내고 있었다.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와 국내 배치라는 주장에 있어서, 실제로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초국경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 부분이지 실제로 상대국가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고 경찰청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은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 공안이 국내 경찰로 파견돼 있다고 말한다.

또 전파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SNS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개개인의 소셜 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12·3 계엄 당시에 종합일간지 스카이드에리는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는 정식 언론사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상황으로, 매우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재가공을 통해서 정보를 단적인 부분으로만 접하게 되고, 선호하는 정보 위주의 선택을 쉽게 만드는 상황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과연 옳은 것이란 있을까? 사실과 거짓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아니면 말고’처럼 가볍게, 책임감 없이 정보를 소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사 설

선거를 ‘꽃’이라 부르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왜 선거를 그 많은 표현 중에 ‘꽃’이라고 한 걸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결실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르는 기점이 바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된 최초의 선거, 특히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가 치러진 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말 대선이나, 1988년 제13대 총선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기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민주화 또한 지방선

거를 실시하게 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50년대부터 실시하던 지방선거가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1991년 부활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광역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거가 같지는 않다. 꽃마다 품종이 다르듯이, 그리고 덜 핀 꽃도 있고 활짝 핀 꽃도 있듯이,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듯이 선거는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꽃’에 등급을 매길 수도 있다. 높은 질의 선거와 낮은 질의 선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하는 지

방선거는 어떠한가? 과연 꽃이라 부를 수 있을까? 꽃 중에서도 어떠한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적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 선거는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실현하는 핵심 기제이며, 이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꽃’이라 부를 수 있다.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상품이 거래될 때처럼, 유권자가 성과가 많고 좋은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고, 이를 아는 정당이나 후보가 좋은 성과와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 선거는 비로소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유권자가 어떠한 평가나 표를 통한 ‘징계’와 ‘보상’의 의지도 없이 이른바 ‘묻

지마 투표’를 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지만,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가 되지 못하는 선거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를 재생산할 뿐이다.

전남광주는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를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절대우위’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후보자 공천 과정이 본선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

만, 그래도 우리는 차선을 찾아야 한다. 한 치라도 더 나은 정당이나 후보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처럼,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살 때처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졌왔다. 하지만, 그 명예로운 이름은 많은 이들의 피와 땀,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든 꽃에 다시 물을 주어 생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

데스크에서

조롱거리가 된 민주주의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월 18일 위에 놓여있는 ‘탱크데이’ 문구와 그 옆에 있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기 충분했다. 특히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책상을)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위한 발언을 떠올리게 하며 비판이 커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의 존재는 단순히 군용 장비가 아니었다. 국가 폭력의 수단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두려움과 폭력의 주체를 가벼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공포에 떨었던 시민들을, 그리고 희생한 열사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친다.

논란 직후 스타벅스 코리아는 문구를 변경했다. ‘탱크데이’는 ‘탱크 텀블러데이’로, ‘책상에 탁’ 문구는 ‘작업 중 탁’으로 변경됐는데 이 또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벤트 자체를 중단하고 해당 텀블러에 대한 정보를 삭제했다.

이벤트 중단 이후 스타벅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게재됐으며,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은



여 영 인 편집국장
duwjdlis1022@naver.com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손 대표와 행사 기획 임원을 해임했다. 이에 끊이지 않고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 이는 유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희생한 열사들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빠른 사과 이전에 또다시 논란을 낳은 기업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곳곳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배달 노동자들도 배달을 거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 및 배달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불매운동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 기관에서도 국민 대상의 행사를 진행할 때 스타벅스 상품권을 애용한 것을 보면 이는 하나의 큰 선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학보사도 ‘스타벅스 상품권’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낱말 퍼즐의 정답으로 내놓았던 상품권이었는데 5월의 상품부터는 다른 브랜드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민의 아픔과 희생이 담겨있는 역사를 모독한 일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를 애용할 것이며, 패러디나 유머로 쓰이는 소재를 사용한 것이지 조롱의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연상케 하는 소재를 어떻게 유머로 소비하고 패러디화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역사의 요소는 신중하고 어렵게 사용돼야 할 소재이다.

광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케팅의 가벼운 요소로 이용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낱/말/퍼/즐

전	중	합	총	립
시	국	다	통	청
도	남	전	현	을
광	림	화	기	별
남	특	일	주	강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0000000000의 시장을 선출한다.
-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옛 0000 앞에서 진행됐다.
- 대학의 생존 방안 중 하나는 대학의 소유권을 공공 영역으로 넘기는 000 전환이다.
- 이달에 있는 호국보훈의 기념일은?

지난호 정답

5월의 민주화

지난호 정답자

김하영(행정복지·4)
황은진(약학·4)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아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6월 30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를 통해 투썸플레이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휴머니티

HUMANITY
BEYOND
the FUTURE

*

혁신의

80th Anniversary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미래

조선대학교

Since
194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